제주관광 '독버섯' 불법 유상운송 만연

지난해 사상 최대 67건 적발… 대부분 중국인 대상
개인 거래서 최근엔 中 현지 여행사 사이트서 모객

지난해 12월10일 제주시 조천읍 산굼부리 일대를 돌아다니던 자치경찰의 눈에 한 중국인 무리가 들어왔다. 중국인 4명이 타고 온 차량은 하, 허, 호 번호판을 단 렌터카가 아닌 일반 개인 차량이었다. 이들을 산굼부리에 데려다 준 운전자도 중국인이었다. 30대 후반의 중국인 운전자 A씨는 자치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을 태워 산굼부리까지 데려다 주는 대가로 700위안(한화 11만7500원)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가 운영하는 '씨트립' 사이트에서 관광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유상운송' 영업이 제주 관광시장에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2년 사이 적발 규모는 20배 넘게 늘어 급기야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자치경찰이 도내에서 불법 유상운송 영업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적발해 국가 경찰에 고발한 건수는 지난 2017년 3건에서 2018년 31건, 지난해 67건으로 2년 사이 20배 넘게 급증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으로 관광객을 실어나르고 그 대가를 받는 불법 유상운송은 최근 제주 관광시장에서 가장 만연하게 퍼진 문제로 꼽힌다. 불법이다 보니 운행 도중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불법 유상운송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유상운송은 중국 개별관광이 성장한 시기에 번져 나갔다. 불법 유상운송으로 적발된 대다수가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다. 관광통역안내사와 함께 주로 전세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단체 관광객과 달리 개별 관광객은 현지에서 스스로 언어와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불법 영업은 이런 욕구를 파고 들었다.

가격도 기형적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관광객을 태워 여행을 시켜주는 대가로 받는 돈은 인원 수에 상관 없이 하루 500위안(한화 8만4000원)에서 700위안(한화 11만7500원)으로 터무니없이 저렴하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단체관광은 줄고 개별관광이 늘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과 또 보다 저렴한 가격에 관광을 하려는 욕구가 맞아 떨어져 불법 유상운송 시장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범행 수범이 대담해지고 있다. 위챗(we chat·중국판 카카오톡) 등 SNS에서 암암리에 관광객을 모집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A씨의 사례처럼 씨트립 등 온라인 여행사 사이트(OTA)에 버젓이 상품을 올려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수법도 등장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OTA를 통한 불법 유상운송 영업이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면서 "중국 현지 소비자 중 대다수는 이런 영업이 한국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관광업계는 통계상 보여지는 수치보다 불법 유상운송 시장은 더 크게 형성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제주 체류 중 남는 시간에 불법 유상운송에 뛰어드는 따이공(중국 관광객을 대신해 물건을 구매하는 상인)들도 생겨났다"면서 "때때로 진행하는 합동 단속으론 불법 유상운송을 근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제주, 설 연휴 국내 인기 여행지 '2위'

인터파크투어 분석 결과

올해 설 연휴 기간 각광받는 여행지는 제주도와 강원도로 나타났다.

14일 인터파크투어가 설 연휴 국내여행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강원도(27.8%)의 인기가 가장 높았으며, 제주(17.9%)·서울(13.3%)·경기(6.5%)·부산(5.6%)이 뒤를 이어 각각 1~5위를 차지했다.

연중 인기 여행지인 제주도와 강원도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연휴 기간 멀리 떠나지 않고 도심 속 휴식을 즐기려는 수요로 서울과 경기도가 그 뒤를 이었다.

여행 기간(숙박기간 기준)은 1박2일(67.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2박3일(26.8%), 3박4일(4.8%) 순으로, 짧은 기간 여행을 선호했다. 이번 연휴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가족친지집에 방문하거나 차례를 지낸 후 하루, 이틀 가량의 단기 여행을 즐기는 형태로 분석된다.

아울러 숙소 체크인이 가장 많은 날짜는 1월 24일(33.2%)로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5일(23.7%), 26일(20.1%), 23일(14.3%), 27일(8.7%) 순이다.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10대 여학생 상습 성폭행 30대 징역 15년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십수차례에 걸쳐 몹쓸짓을 한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B(13)양을 그해 4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양에게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하도록 강요한 것은 물론 음란 행위를 시킨 혐의와 알몸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도구로 삼아 성욕을 충족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도 매우 크다"면서 "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갖고 평생을 지낼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JDC 상수 보급량 증량 요청, 양심 없어"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진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JDC가 신화역사공원 상수 보급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여기저기 지하수 고갈의 신호가 보이는 지금, 도민을 속여가며 늘린 숙박시설에 쓸 물을 더 달라는 JDC의 태도는 도민 기만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사무조사 증인 심문 중 공개된 '상·하수도 종합개선대책(안)' JDC는 신화역사공원 상수 보급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드러났다"며 "JDC가 제주도민에게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당초 숙박시설을 3배로 늘린 계획을 취소하고 물 사용량을 줄이는 계획을 발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JDC는 제주도 바다가 하수로 인해 썩고 있고 지하수 고갈로 제주도민의 생존이 위태로운 지금, 본래 사업계획대로 쓸 물을 달라고 당당하게 '개선대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4일 제주시 아라동 국제대학교 인근 5·16 도로에서 자치경찰이 도로 통제를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어제 제주산간 많은 눈… 한때 도로 통제

오늘 최고기온 8~10℃

14일 제주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며 한때 주요 산간도로가 통제되는 등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4일 0시부터 이날 오후 4시20분까지 제주 한라산 진달래밭에 13㎝(신적설 기준)의 눈이 내린 것을 비롯해 윗세오름 9.9㎝, 영실 6.9㎝, 교래리 4.5㎝, 제주시 산천단 5㎝의 적설량을 각각 기록했다.

이밖에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제주에 4.6㎜의 비가 내렸고 서귀포시 12.4㎜, 성산 9.8㎜, 표선 11㎜의 강우량을 보였다. 제주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주요 산간도로에서는 교통이 통제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들어 날씨가 풀리고 쌓인눈이 녹으면서 제주산간과 제주북부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오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5일 아침 기온은 3~5℃, 낮 최고기온은 8~10℃로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장난감 총으로 주민 위협 현직 해양경찰관 입건

현직 해양경찰이 장난감 총으로 주민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 도검 및 화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모의총기 소지)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A(47)경사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50분쯤 제주시 탑동 한 마트 주차장에서 장난감 총으로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난감 총의 경우 완구용임을 나타낼 수 있는 '칼라파트'를 부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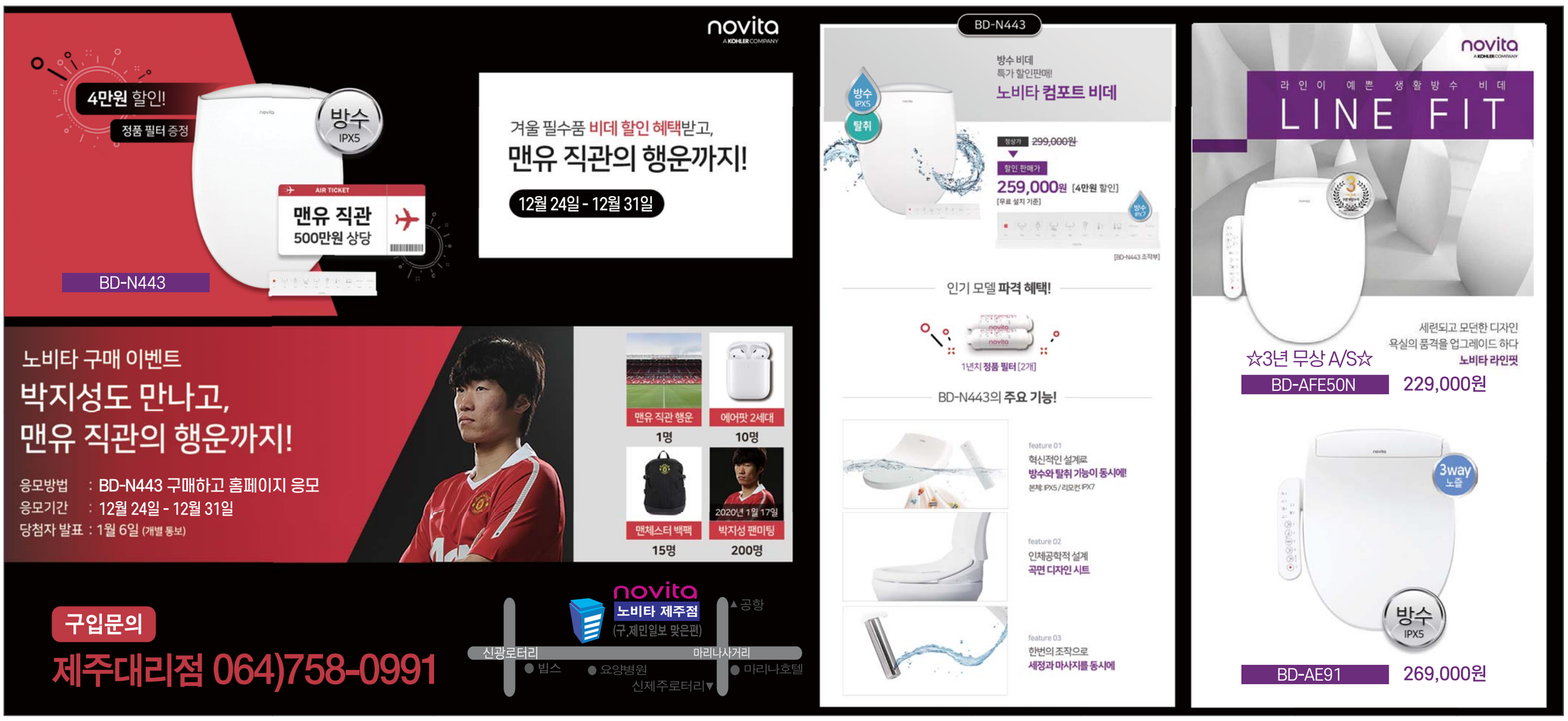
A씨가 사용한 장난감 총에는 칼라파트 등이 부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현석기자

주택 화재로 50대 여 숨져

14일 0시57분쯤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서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불로 집에 있던 A(50·여)씨가 숨졌고, A씨의 남편과 아들은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집 밖으로 빠져나와 다행히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주택 내부를 전부 태워 소방서 추산 약 7800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